국별 리포트

크로아티아 국가신용도 리포트

2009. 12

Ⅰ. 일반개황 2

Ⅱ. 경제동향 3

Ⅲ. 정치·사회동향 10

Ⅳ. 국제신인도 13

Ⅴ. 종합의견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크로아티아(Republic of Croatia)

Ⅰ. 일반개황

면 적	57천 km^2	G D P	693억 달러(2008)
인 구	4.42백만 명(2008)	1 인 당 GDP	15,670 달러(2008)
정 치 체 제	의회민주제	통 화 단 위	Croatia Kuna(HRK)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및 EU 가입 추진	환 율(달러당)	4.94(2008년 연평균)

□ 크로아티아는 1991년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하였으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서비스산업 중심 국가임. 독립이후 1990년대에는 동국내 세르비아계와의 무력충돌, 보스니아 내전개입,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후유증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2000년 이후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전망됨.

□ 2000년 신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친서방 저책을 추진하였고, 2002년 EU 가입예정국으로 결정되어 2005년 이후 EU 가입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슬로베니아와의 국경문제, 부정부패 척결 등 개혁미진으로 가입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슬로베니아에 이은 발칸지역의 체제전환 선도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발칸지역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도 양호한 편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f
경 제 성 장 률	4.2	4.7	5.5	2.4	-5.4
재 정 수 지 / G D P	-4.1	-3.0	-2.6	-2.1	-3.8
소비자물가상승률	3.3	3.2	2.9	6.1	2.5

자료: IMF, EIU.

□ 2009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2000년 이후 크로아티아는 코소보 전쟁 종결로 인한 관광산업 호조 및 저금리 기조하에 국내 투자 증대로 3~5%의 성장세를 유지해왔음.

○ 2007년 경제성장률은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증대,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 증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로 5.5%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한 2.4%를 기록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며 2009년 1분기 -6.3%, 2분기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서유럽의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침체, 기업 투자활동 및 FDI 감소 등으로 연중 전체로는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외 수요침체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락 전망

○ 유고내전시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강 Kuna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크로아티아 물가 관리의 근간이 되고 있음. 200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임금상승 등으로 3.2%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긴축통화 정책 수행으로 2.9%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가파르게 오른 원자재, 원유 및 음식료품 가격으로 6.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금년 들어서 국내외 수요가 크게 침체되고, 원자재 가격 등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2009년에는 2.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될 전망**

○ IMF의 권고에 따른 재정개혁 정책 수행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 2007년에는 총선관련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조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6%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더욱 축소되며 GDP 대비 2.1%를 기록하였음.

○ 2009년 1~9월중 전년동기 대비 재정수입이 7.4%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5.1%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크로아티아 정부는 2009년 7월 부가세 인상(22%→23%) 및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세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정수지 비상관리 목적의 2009년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수정안에 의거한 정책 추진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경제성장률 -4.5% 가정). 그러나 2009년 경제성장률이 크로아티아 정부의 가정치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기 침체로 FDI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06년에는 INA 민영화 재개(지분 17% 매각) 및 투자 이익의 재투자로 35억 달러의 FDI 유입액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도 국영통신회사 T-Hrvatski Telecom의 민영화, 기업환경 개선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해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42.2% 증가한 4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FDI는 크로아티아 경제성장의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FDI가 12%

감소하였으며, 2009년 들어 세계경기 위축, 내수침체 및 6개 조선소에 대한 민영화 작업 정체 등 민영화 시장의 침체로 인해 FDI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정책

□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 크로아티아의 독립 이후 구 유고 지역 시장 상실로 제조업을 통한 생산규모는 1989~92년중 46% 감소하였으며, 산업시설 파괴 및 섬유, 신발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시작됨.

○ 코소보 내전이 종료된 1999년 이후 조선업, 섬유산업, 제약산업 등의 제조업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관광, 무역 및 운송 등 서비스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와 함께 발칸지역 국가중 체제전환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GDP 대비 생산비중('08): 서비스업(66.3%), 제조업(27.7%), 농림수산업(6.0%)

□ 우수한 관광자원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 지속

○ 크로아티아는 유고내전 이후 평화정착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국가 중 하나임. 1,500km에 걸친 아드리아 해안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07년 전년 대비 7% 증가한 92억 달러(GDP의 16%)의 관광수입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을 통한 서비스수지 흑자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은 주요 외화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관광산업 발달을 위해 정부는 해안지역에 현대식 유흥시설 설치 및 개선, 해안지역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2010년 까지 약 1,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및 동유럽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대 EU 수출비중**

○ 크로아티아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서비스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저부가가치 중심의 제조업 생산기반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며, 매년 GDP 대비 5%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크로아티아는 내전중 제조업 생산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헝가리와 체코가 EU 수출시장을 선점하며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대 EU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음. 내전 이후인 2001~05년중 동유럽지역의 EU와의 교역규모는 평균 9.3% 증가한 반면, 크로아티아는 6%를 기록하며 평균을 크게 밑돌았으나, 최근 들어 대 EU 수출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EU 가입관련 개혁 미진**

○ 크로아티아는 빠른 시일안에 EU 가입 완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정치, 경제, 사법제도를 EU 기준에 부합토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에도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진행과 관련한 2009년 10월 연례보고서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부패척결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 미진, 사법제도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소수자 인권보호 등의 분야는 여전히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힘.

□ **2009년 예산안 수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는 사회보장지출 삭감 등을 통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음.

○ 2009년 들어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크로아티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으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회는 2009년 7월 금년 예산안을 수정, 통과하였음.

* 주요 내용: 부가세 인상(22%→23%),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세 신규 도입, 공기업 직원 임금삭감 등 조치

□ **중앙은행 환율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세**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강Kuna화 정책을 통한 환율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 미만을 유지하여 왔음. 2008년에는 원자재, 원유 및 음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6.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2.5%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중앙은행은 관광수입이 집중되는 여름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화 매입,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압력이 높아지는 겨울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화 매각을 통해 계절적 환율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불준비율 인하**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경색 지속으로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대출증가율은 2009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크로아티아의 2007년 지불준비율은 55%에 달했으나, 중앙은행은 신용경색으로 시장내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불준비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2009년 2월 국내통화에 대해서는 28.5%에서 25%,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25%에서 20%로 추가적으로 인하였음.

□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불구 장기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크로아티아는 섬유산업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 EU 및 주변국들의 경기 둔화로 인한 교역감소 및 FDI 등 전반적인 투자감소 등으로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전망됨.

○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투자 증가, 관광산업 호조의 지속, 기업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한 수출 증가, EU와의 교역규모 증가로 2010년에는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반전될 것으

로 전망되며, EU 가입 예상시점인 2011년 이후에는 2~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f]
경상수지	-2,555	-3,311	-4,446	-6,397	-3,696
경상수지/GDP	-5.75	-6.75	-7.58	-9.24	-5.91
상품수지	-9,341	-10,487	-12,933	-16,061	-10,619
수출	8,960	10,644	12,623	14,359	10,278
수입	18,301	21,131	25,556	30,419	20,897
외환보유액	8,800	11,487	13,674	12,957	12,905
총외채잔액	30,600	38,400	48,600	54,900	53,600
총외채잔액/GDP	68.9	78.5	83.4	78.5	85.2
D.S.R.	25.8	33.5	33.5	30.5	44.2

자료: IMF, GDF, EIU.

□ **경기침체로 수입규모가 감소하며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될 전망**

○ 2000년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재 수입증가,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구조가 심화되어 왔음. 관광산업 호조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 7.6%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더욱 확대된 9.2%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크로아티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을 통한 서비스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수입규모의 감소폭이 수출보다 확대됨(수출 15% 이상, 수입 20% 이상 감소 추정)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세계경제 침체로 FDI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외부자금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총외채잔액 감소 불구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떨어질 전망

○ 2007년 중앙은행의 은행 대외차입 규제로 민간부문의 외채 증가세가 둔화되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7년 83.4%에서 2008년 78.5%로 소폭 감소하였음.

○ 2009년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감소 및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주요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됨.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의 감소로 2009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과 D.S.R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2009년에는 각각 186.3%(2008년 166.6%), 44.2%(2008년 3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도 전년 대비 증가한 85.2%(2008년 78.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7년 11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 승리

○ 2007년 11월 총선결과 중도우파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은 66석을 획득(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은 56석 획득)하여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함(2003년 이후 집권 지속). 그러나 과반수 의석인 77석 획득에는 실패하여 HDZ는 군소정당인 농민당(HSS) 및 사회자유당(HSLS)와 연정을 구성하여 현재 연립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음(HDZ 연립정부는 총 의석수 153석 중 81석 차지).

○ HDZ는 자본이득 비과세(현행세제)를 주장하는 반면 SDP는 자본이득의 합산 과세를 지지한다는 점이 양당간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나 양당 모두 EU 및 NATO 가입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경제개혁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정책간 큰 차이는 없어 정치적 불안은 이어지지 않고 있음.

□ 2009년 7월 Ivo Sanader 총리 사임으로 Jadranka Kosor가 총리직 수행

○ 2000년 이후 HDZ의 당수로서 총리직을 지켜온 Ivo Sanader 총리가 2009년 7월 갑작스럽게 사임하였으며, 뒤를 이어 Jadranka Kosor가 연립정부 각 구성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음.

○ 그러나 Kosor는 경제위기 극복,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위한 예산안 재편성 등 비대중적인 경제정책 시행과 전임 Sanader 총리의 후견자에 불과하다는 평의 대두 등으로 신임 총리로써 지지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로 제1야당인 SDP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여당인 HDZ 연립정부를 앞서기 시작하는 등 2011년 11월 예정된 총선에서의 Kosor총리 연임 및 HDZ 재집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

□ **2010년 1월 대통령 선거 예정**

○ 2000년 2월 집권한 Stjepan Mesic 대통령은 2005년 1월 선거에서도 연임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됨.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정국혼란이 다소 지속되고 있으나, HDZ의 Andrija Hebrang, SDP의 Milan Bandic(크로아티아 수도인 Zagreb 시장), Ivo Josipovic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Josipovics 후보가 지지율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남.

□ **EU 가입에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협상 진행중**

○ 2000년 9월 EU와 안정제휴협약(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무역장벽 완화가 추진되었으며, 2003년 3월에는 EU 회원가입을 신청, 2004년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정부는 2009년 EU 가입을 목표로 현재 사법개혁 등 12개 조항(총 협상대상 조항은 35개)을 두고 EU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정부 개혁 미진과 슬로베니아와의 국경문제로 협상은 지연되어 왔음.

○ 그러나 2009년 9월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였고, 2009년 11월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2011년, 늦어도 2012년경까지 EU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주변 발칸국과 우호관계 유지**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는 동국 내 크로아티아계 권익문제, 슬로베니아와는 아드리아해 조업권 및 국경문제 등이 잠재하고 있으나 분쟁상태로 비화되지는 않은 상황임.

□ 의장국으로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주도

○ 크로아티아가 가입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은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 3개국이 1992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며 시작되었으며, EU 가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국간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8개국으로 확대 발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크로아티아는 EU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대신에 동 협정을 주도하고 있음.

□ 2009년 4월 NATO 가입

○ 과거 전쟁으로 인한 경제퇴보를 경험한 크로아티아는 지역정세안정을 위해 NATO 가입을 추진하였음. 2000년 5월 NATO 가입 사전 절차인 평화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성공적인 군제개혁을 이루었으며,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 증원 등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2009년 4월 NATO에 가입하였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불안 요인은 미미

○ 인구의 약 90%가 크로아티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민족 동거에 의한 민족간 분규는 없으며, 종교적 갈등이나 기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국내적 갈등요인도 미미함.

○ 의회 내 좌파와 우파 정당간의 갈등, 정치계의 부정부패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편이나, 2000년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사회불안 요인은 적은 편임.

Ⅳ.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도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평가순위

○ 크로아티아는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터 투자적격 이상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한편, 크로아티아는 2009년 1월 개최된 OECD CRE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상환능력 지표 저하 및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입의 감소 가능성이 지적되며 5등급으로 한단계 하향 조정되었음.

<표 3>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기관명	현행	종전
한국수출입은행	C1(2007.12)	C1(2009.12)
OECD	5등급(2009.1)	4등급(2000.10)
S&P	BBB(2004.12)	BBB-(1997.1)
Moody's	Baa3(2001.11)	Ba1(1997.1)
Fitch	BBB-(2001.6)	BB+(1999.4)
I.C.R.G:	64/140(2009.9)	55/140(2008.9)
Euromoney	46/186(2009.9)	52/186(2009.3)
I.I	61/178(2009.9)	58/175(2009.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모든 위험에 대한 인수가능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전액 단기 인수가능

2.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유고연방의 대외채무 승계 문제와 관련, 1995년 3월 파리클럽을 통해 11억 달러(유고연방 공적 대외채무의 28.5%)규모의 공적 대외채무 승계 및 14년간 리스케쥴링에 합의하였고, 1996년 7월에는 런던클럽을 통해 15억 달러(유고연방 민간 대외채무의 29.5%) 규모의 민간 대외채무를 승계함.

○ 1995년 유고내전 종식과 함께 동 채무는 채권으로 재발행되었으며 1997년 2월 정부는 3억 달러(5년 만기) 규모의 유로본드를 최초로 발행하는데 성공함.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 활성화 등으로 보유외환이 늘어나 외채상환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

○ 한편, 2008년말 총외채잔액은 549억 달러(GDP의 79.2%)로 과중한 편이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입의 5개월분에 달하는 등 외환보유액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OECD 회원국 ECA의 대 크로아티아 지원현황(OECD, 2009년 5월말 기준)
- 단기: 총지원잔액 1.1억 달러(연체금액: 60만 달러, 연체비중: 0.1%)
- 중장기: 총지원잔액 10.1억 달러(연체금액: 3,130만 달러, 연체비중: 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4.15 수교(북한과는 1992.5.12)

□ **주요협정체결:** 무역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2002), 투자보장협정(2005)

□ **교역현황**

○ 2007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들어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양국간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1.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한편, 대한민국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 초과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2009년 1-10월중 대 크로아티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3.8% 감소한 5,234만 달러, 수입은 18.5% 증가한 1,071만 달러를 기록함.

<표 4> **양국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1~10월	주요품목
수출	178	108	52	기계류, 운송장비, 직물, 연료 등
수입	21	10	11	기계류, 운송장비, 전기기기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2009년 9월 말 기준): 없음.

Ⅴ. 종합의견

□ 내전종료 이후 크로아티아는 관광산업 호조 등으로 매년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 EU 수출 감소, 내수침체, 기업투자활동 감소 및 FDI 위축으로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임. 2009년 총외채잔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감소 및 경기침체로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저하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관광산업을 통한 서비스수지 흑자구조의 유지 및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수요위축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임. 우수한 관광자원과 EU와의 무역규모 증가세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플러스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도우파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은 2003년 이후 크로아티아의 집권여당으로 현재의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으나, Sanader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 및 신임 Kosor 총리의 약한 정치적인 지지기반, 최근의 경제위기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의 지지율 약진으로 HDZ의 2011년 총선에서의 재집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조 사 역 반 형 섭(☎02-3779-6665)
E-mail : hsbhan@koreaexim.go.kr